

김민재 “브람스’, ‘이렇게 연기하면 되나’ 자신감 생겨”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피아니스트 ‘박준영’ 역

“박은빈, 내가 태어났을 때 데뷔... 많이 의지”

“진심 다해서 연기... 시청자들에게 위로 됐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지금 저에게 ‘이렇게 연기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만큼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준 작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 김민재는 2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SBS TV 월화극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어제 마지막 방송을 보면서 되게 떨렸다. 드라마가 진짜 끝나는구나 싶어 섭섭하기도 했고, 잠못 이루는 밤이었다”며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전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재능은 있지만 현실에 치이는 월드클래스 피아니스트 ‘박준영’으로 분해 밀도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늦깎이 음대생 ‘재승아’ 역의 박은빈과의 먹먹한 로맨스도 호평받았다.

김민재는 “해피엔딩이라 너무 다행이다. 저도 바뀐 결말”이라며 “준영이가 행복해지고 잘 지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드라마가 주는 잔잔한 속 격동적인 감정들이 좋아 이 작품을 선택했다. 그는 “대본을 봤을 때 잔잔한 느낌 속 요동치는 감정들이 많아서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다”며 “준영이는 월드클래스 피아니스트이지만 그 이면의 수줍음 많은 모습들이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피아니스트라 연주 장면에 대한 중압감이 있었다. 그는 “그냥 피아노도 어

려운데 콩쿨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연기였다”며 “초반 한달만 정도를 계속 피아노 연습만 했다. 정말 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졸업연주회 때 사실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직접 치는 구간이 많았다. 처음에는 자괴감과 들고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아서 아쉬웠다.”

지금 피아노 실력은 어떨까. “피아노를 단계별로 배운 게 아니라 곡들을 외워서 치는 거다 보니 치는 곡은 잘 치게 된 것 같다.”

극중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베토벤 월광 소나타와 해피 버스데이 변주, 브람스 트로이메라이 등 모든 곡이 다 기억에 남는다는 전언이다.

특히 “트로이메라이는 정말 많이 쳤다. 가장 오래 연습한 곡”이라며 “앞으로도 피아노는 계속 연습하겠다. 팬들 앞에서 선보이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준영’으로 살면서 감정 소모도 많았다. 그는 “준영이를 온전히 느끼려고 했다”며 “답답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도 너무 좋았다”고 기억했다.

실제 ‘박준영’과 비슷한 면이 많다는 전언이다.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긴장도 많이 한다.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친구 등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배려하는 편이다. 비슷하네, 준영이는 너무 말을 안 해서, 그래도 나

는 말을 좀 하는 편이다.”

준영이가 성장통을 겪은 것처럼 김민재도 배우로서 성장통을 겪었다. 그는 “준영이가 여러 이유로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다”며 “하지만 여러 이유로 준영이처럼 이 일을 계속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준영이는 송아씨를 통해 행복을 느끼지만 저는 누구한테 의지하지는 않는 편이다. 누구한테 의지한다고 상황이 해결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딪치고 힘들어하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나가게 한다.”

“재능 있는 준영이와 재능 없는 송아 씨 송아 씨라는 판단이다. “저도 사실 처음 이 일 시작했을 때 재능이 없었다. 정말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다.”

박은빈과의 멜로 연기는 어땠을까. 그는 “박은빈에게 정말 많이 의지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데뷔했더라”며 “정말 단단한 사람이다. 일에 대한 깊이감, 진중함 모든 것이 좋았다”고 극찬했다.

역지로 뭉가를 하려 하기 보다는 진심을 다해 연기했다. “똥이나 호흡과 같은 기술적인 것 말고 그냥 이 드라마를 진심으로 하고 싶었다. 막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감정에 집중해서 연기했다.”

준영이 송아에게 여우같은 행동을 보였다며 ‘준족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끼를 부린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한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 여우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올해 ‘남만닥터 김사부2’에 이어 ‘브람스’까지 두 작품 모두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올해를 돌아보면 제가 하는 일을 더 사랑하게 된 순간들이 많았다. 정말 많은



사랑을 제값했고, 그렇다보니 자신감도 붙게 됐다. 그래서 일하는 게 재밌었고, 사랑하게 됐다.”

배우 한석규에 대해서도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선배와 하는 작품이라면 저는 다 할 것”이라며 “같이 작품할 때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 밥도 많이 사주시는데 밥 먹으며 하는 사적인 얘기도 좋고, 모든 순간들이 너무 좋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김민재 작품이니까 봐야지 한다. 그건 그만큼 좋은 감정을 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연말 시상식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를 잘 안 하는데,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다”며 “베스트 커플상도 좋고 다 좋다. 욕심이라기보다는, 주

면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올해가 가기 전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춤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 전부터 했다”며 “피아노도 완곡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연습할거고, 몸무게도 좀 찌우고 싶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을까. 그는 “왕의 남자처럼 사극에서 춤을 통해 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워낙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현대극 말고 사극에서 우리나라 전통 춤 같은 걸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통해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시다. 힘들지만 앞으로 잘 지내자 라는 이야기인 만큼, 시청자들에게도 이 작품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마무 “딩가딩가’, 신나고 밝은 곡...재기발랄 에너지”

내달 3일 새 미니앨범 ‘트래블’ 앞서 수록곡 선공개



그들 '마마무'가 신곡 '딩가딩가(Dingga)'에 대해 “신나고 밝은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며 “마마무 특유의 재기발랄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마무는 20일 오후 6시에 새 미니앨범 '트래블(TRAVAL)'의 수록곡 '딩가딩가'를 선공개한다. 새 미니앨범 '트래블'은 오는 11월3일에 발표한다.

'딩가딩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힘든 현 상황을 '신나

고 즐겁게 이겨내자'는 마마무만의 재기발랄한 면모를 담았다. 레트로 감성에 힙한 매력을 더해 마마무 표 '레트로 핑키'를 완성했다.

마마무는 이날 공개한 일문일답을 통해 "새 앨범을 작업하면서 좋은 타이틀 후보곡들이 많아서 어떤 곡을 타이틀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는 끝에 퍼포먼스가 강점인 곡을 타이틀로 하고, 듣기에 편하고 쉬운 '딩가딩가'를 먼저 공개해 무무들과 신나는 위밍업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선공개곡 '딩가딩가'는

코로나19로 멀어져 가는 사람 간의 거리, 외로운 일상 속에서 다 같이 '딩가딩가'하면서 놓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소개했다.

마마무는 "후렴구에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Drink like a like a like a fish'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듯한 제스처가 포인트"라며 "나나나나나 덩가딩가해" 부분에서 무뎠한 듯 손가락으로 바닥을 끄적이는 동작이 있는데, 어릴 적 '땀따먹기' 놀이를 하듯 추억을 회상하며 다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곡은 플러스케이즈를 배경으로 한 '레트로 핑키' 콘셉트다.

마마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놓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인 만큼, 즐거운 파티를 뮤직비디오에서나마 연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레트로 장르의 노래에 맞춰 플러스케이즈 배경 등 뉴트로 콘셉트를 기획했다"며 "음모야에' 때처럼 마마무의 유쾌한 모습을 기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 미니앨범에 대한 스포일러도 살짝 공개했다. 마마무는 "아직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과 이에 걸맞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무들과 함께 하는 무대가 너무 그림자"며 "곧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마무 노래 들으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0 대중문화예술상, 28일 온라인 시상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콘진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이 오는 28일 온라인 시상식으로 열린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 방송작가, 연주자, 안무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포상이다.

공적 기간과 그 간의 국내외 활동 실적 및 업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국민 평판 및 인지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 심사해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가수 양희은, 배우 김혜자 등

5명이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배우 염정아, 한지민, 이하니, 김남길, 정혜인, 가수 배철수, 봄여름가을겨울, 송가인, 마마무, 몬스타엑스, NCT127 등이 각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상식으로 개최된다. 당일 오후 6시부터 콘진원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시상식에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축하하기 위한 세븐틴, 효린, 김준수 등 한류 스타들의 무대가 예정됐다.

온라인 참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페이스북 공식 채널(facebook.com/korea.entertainment.awards)을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보검·공유 주연 영화 '서복' 12월 개봉

배우 공유와 박보검이 주연한 영화 '서복'이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21일 '서복'의 12월 개봉 소식을 알리며 1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는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박보검)을 극비리에 옮기는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이 서복을 노리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특별한 동행을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다.

1차 포스터는 상반된 상황에 처한 두 남자의 모습을 각각 담았다. 어둠 속 강렬한 불빛에 비친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의 잔상은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그의 복잡한 심경을 전하는 한편 '죽지 않는 존재' 서복(박보검)의 포스터는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슈퍼엠, 美 '제임스 코든쇼' 첫 출연... '원' 부른다

'몬스터'·'인피니티' 합쳐 만든 하이브리드 리믹스 곡

SM엔터테인먼트의 어벤저스 그룹 '슈퍼엠(SuperM)'이 미국 CBS 인기 쇼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 첫 출연한다.

21일 SM에 따르면 슈퍼엠은 오는 23일 방송되는 '제임스 코든쇼'에 출연, 신곡 '원'(Monster & Infinity) 무대를 선보일 예

정이다. '원'은 슈퍼엠이 최근 발매한 정규 1집 '슈퍼 원'의 타이틀곡이다.

앨범 수록곡 '몬스터'와 '인피니티'를 합쳐서 만든 하이브리드 리믹스(Hybrid Remix) 곡이다. 서사적인 곡 구성과 트렌디시언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인상적이다.

앞서 슈퍼엠은 앞서 미국 NBC의 인기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The Ellen DeGeneres Show)와 ABC의 간판쇼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했다.

한편, 지난 9월25일 발매된 '슈퍼원'은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2위로 진입했다. 18-24일자 차트에서는 57위를 차지하며 3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하고 있다.